

지진발생대처요령

한반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평창 지진 등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서쪽 동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도 지진해일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이 경고되는 등 우리도 지진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집안에 있을 때

크게 흔들릴 때의 진동시간은 1~2분이므로 우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다. 특히 머리 부분의 보호에 가장 신경을 써서 대피를 해야 하며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 가구를 고정시키거나 생활용품 등이 떨어지지 않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이 나면 침착하게 불을 끄고 사태를 살핀 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하는 열기구와 전기 등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중간밸브를 잠그거나 스위치를 꺼야 한다. 옷에 불이 붙으면 담요로 몸을 감싸서 끄고 혼자일 경우 누워 뒹굴어서 끈다.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은 적으므로 놀라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밖으로 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거나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집밖은 더 위험하다. 화장실 목욕탕 등은 면적이 좁은데 비하여 벽면이 많아서 비교적 안전하며 아파트 등 높은 건물에서는 비상대피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곳을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 문이 틀어져 열지 못하게 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 급박할

경우에는 위층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변화가나 빌딩에 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서 있지 못할 정도가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문기둥이나 담에라도 의지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체는 더 위험하다. 변화가, 빌딩가, 사무실 등에서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 우선 가지고 있는 소지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까운 빌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혼란이다. 이때에는 안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지하는 지진 발생시에 비교적 안전하나 정전 등의 불안에 의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전이 되어도 곧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므로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운동장에서는 놀라서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가는 것보다는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는 무너지는 선반이나 책장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 몸의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전열기나 전기기구 등, 화재의 원인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하며 비상구를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일 간헐히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꼭 잡는다.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므로 문을 열고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한다. 문을 열고 뛰어 내릴 경우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될 우려가 있다.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꼭 잡고 넘어 지지 않도록 하며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행동한다. 지하철역에서는 일시 정

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므로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 그 상태로 30분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릴레이 인터뷰 23

국민대학교 최규석



금번 릴레이 인터뷰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국민대학교에서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최규석(37세)씨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는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를 입학

하며 처음 방사선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후 편입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1996년 RI일반면허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감독자면허를 2005년에는 기술사면허까지 취득하였다. 덧붙여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자격증도 RT, MT, UT 등 각종 자격증을 겸비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1998년 국민대학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에 근무하며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최규석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국민대학교는 여타 대학과 달리 개봉선원이 아닌 밀봉선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핵종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핵종은 Co-57 핵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감기가 270일로 다른 밀봉선원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약 2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Co-57은 에너지가 높지 않아 종사자들이 안전수칙만 준수할 경우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학교에서의 사고 발생은 타 사업장의 사고보다 과장이 크므로 종사자(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